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양돈농협)에서 도드람 박광욱 · 강원 고동수 · 제주 고권진씨 당선

- 서울경기 이정배 · 대전충남 이제만 · 대구경북 이상용 · 부경 이재식씨 연임



이정배 서울경기양돈조합장



박광욱 도드람양돈조합장



고동수 강원양돈조합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



이상용 대구경북양돈조합장



이재식 부경양돈조합장



고권진 제주양돈조합장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국 7개소의 양돈농협 조합장 당선인이 최종 확정됐다.

대구경북은 단일후보로 이상용 현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서울경기 이정배 당선인, 대전충남 이제만 당선인, 부경 이재식 당선인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서울경기 이정배 당선인과 대전충남 이제만 당선인은 4선에, 부경 이재식 당선인은 3선에 각각 성공하게 됐다.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곳도 있다. 강원 고동수 후보(전 농협중앙회 이사), 도드람 박광욱 후보(전 도드람양돈조합 감사), 제주 고권진 후보(전 (사)대한한돈협회 부회장)가 각각 최종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3월 21일부터 4년 후인 2023년 3월 20일까지이며,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infojh.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P&P